

MERRY CHRISTMAS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예수 성탄 대축일”

[요한 1, 1-18, ]

<http://www.sjkoreancatholic.org/>

2010.12.25

## 금주의 강론

[원주 교구 박용식 신부님 강론에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요한 1,14).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닮는다. 성격이나 취미나 생각이

나 행동은 물론 말투·걸음걸이·얼굴 모습까지도. 청소년들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닮고 싶어서 연예인들처럼 꾸미고 다닌다. 연인들이나 신혼부부는 커플링을 한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같아진다. 내가 학생시절에 지독한 류머티즘에 걸려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할 때 어머니께서는 밤잠을 안 주무시며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도 같이 아프고, 자식이 잠을 못 자면 어머니도 같이 잠을 잘 수 없었나 보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같아지셨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무능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처럼 밥을 먹고 변을 보고 추위와 더위를 느끼고 질병에 걸리고 인간처럼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되셨다. 사랑은 상대를 자신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와 같아지게 하는 것이다. 눈높이 수학, 눈높이 교육이 인기다. 하느님이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다.

우리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픈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자신의 수준과 위치와 주장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위치로 내려감으로써 사랑할 수 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인간과 같아지신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다. 성탄은 사랑의 신비다. 자신의 위치를 깎아내려 낮아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눈높이를 맞춘 사랑의 신비가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이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성탄 축하 알림:

- 간단한 성탄 축하식을 12월26일(일) 교중미사후에 금봉황에서 성심 성가대원및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성심성가대의 망년회 겸 신년축하 파티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26일 모임에서는 2011년에 봉사하실 임원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항상 주님을 위한 힘든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즐겁고 기쁜 성탄을 맞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심 성가대 단장 최주남 예로니모

- 정재임 마태오 형제님, 연말 휴일을 맞이하여 1월 2일 귀국 여정으로 고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은 복되시어라. 하늘에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루카 19. 38)”



1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2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10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이하지 않았다.

12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이들은 혈통이나 육욕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16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18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 주셨다.>

1분 명상

♡"세월이 더없는 것이 아니다." ♡ 범정스님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어린 사람은 한 살 더해지지만  
 나이든 사람은 한 살 줄어든다.  
 찾을 수 없는게 세월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에는 끝이 없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가진 것이 적든 많은  
 덕을 닦으면서 사는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잘살아야 한다

토막 교리

“성탄시기”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심을 경축하는 성탄시기는 12월 25일부터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 결합은 곧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기에 이 날을 ‘그리스도인의 날’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기에 인간인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탄은 모든 생일 중에 가장 의미있는 생일이다. 성탄은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가 2,14)가 되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의 진가를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천사의 세계와 악의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너무나 신비로웠기 때문이다.

금주의명언 "나누고 난 빈손엔 더 큰 행복이 채워진다."